



즉시 배포용: 2019 년 2 월 6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아메리카 항공(AMERICAN AIRLINES)과 브리티시 항공(BRITISH AIRWAYS)이 존에프케네디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을 21 세기의 관문으로 변환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 억 4,400 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

8 터미널(Terminal 8)의 확장으로 새로운 고객 편의 시설과 뉴욕과 런던 간의 높은 빈도의 서비스 가능

JFK 공항을 현대적이고 통합된 공항으로 변환하려는 주지사의 130 억 달러 규모 계획의 추가적 진전

터미널 프로젝트는 총 750 개 이상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여, 전체적인 JFK 공항 현대화로 9,600 개의 일자리 추가

투시도는 [여기](#)에서 이용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과 브리티시 항공(British Airways)이 존에프케네디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을 미국으로 향하는 현대적인 21 세기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주지사의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8 터미널(Terminal 8)의 고객 경험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 3 억 4,400 만 달러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 개월 전에, 우리는 JFK 공항을 400 만 제곱 피트를 추가하고 공항의 수용력을 연간 최소 1,500 만 승객까지 증가시켜, 새롭고 통일된 터미널과 더불어 최신의 세계적인 허브로 변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JFK 공항을 진정한 현대 공항으로 변모할 특별한 민간 투자와 함께 오늘, 변화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투자는 뉴욕 전역에 걸쳐 공항을 현대화하려는 뉴욕주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부분입니다. JFK 공항과 라파디아 공항에서 이타카 공항과 로체스터 공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미래를 위해 공항 인프라를 재건하고 뉴욕주를 국가의 정문으로 유지하는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투자는 JFK 공항의 서비스를 확장하고 현대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계속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뉴욕주의 경제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JFK 공항과 주 전역의 다른 공항의 변화는 여행을 더 쉽고 더 안전하게 보장하며,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할 것입니다.”

8 터미널(Terminal 8)의 개선 사항은 현재 7 터미널(Terminal 7)에 위치한 브리티시 항공(British Airways)의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항만청(Port Authority)과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7 터미널은 제트블루 에어라인(JetBlue Airways) 계획의 일환으로 공항 북쪽에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할 것입니다. 8 터미널(Terminal 8)의 개선에 항만청(Port Authority)의 기금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Cuomo 주지사가 2018년 10월에 전면적으로 발표한 JFK 공항의 미래를 위한 130억 달러 규모의 비전 계획의 최신 단계입니다. 민간 기금인 90%인 이 기록적인 투자는 두 개의 새로운 국제 터미널을 포함하여, 최첨단 승객 편의시설과 편안한 지상 교통 선택 및 공항의 수용력을 연간 최소 1,500만 승객까지 늘리는 매우 단순화된 도로를 갖춘 통합되고 상호연결된 공항을 요구합니다.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과 브리티시 항공(British Airways)의 8 터미널(Terminal 8)에 대한 투자는 3만 3천 제곱 피트의 공공 공간을 포함하여 총 70,400 제곱 피트의 추가적인 공간과 함께, 전반적인 고객 경험을 개선할 것입니다. 57,500 제곱 피트의 기존 공간도 개조될 것입니다. 새로운 편의시설에는 두 항공사를 위한 프리미엄 라운지, 개선된 수화물 체계, 프리미엄 탑승 수속 절차 공간 및 향상된 영업장소가 있습니다.

더 많은 대서양 횡단 비행기를 고려하여 추가로 동체 폭이 넓은 탑승구 5개와 추가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근 비행장에 항공기 주차 및 하역 구역 4곳이 설치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승객들은 동일한 터미널에서 런던까지 매일 14편의 항공편으로 유연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로 JFK 공항은 최근 몇 년 동안 기록적인 승객양을 달성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6,100만 명이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보다 2.5%가 증가하였습니다.

8 터미널(Terminal 8)의 개선을 통해 프로젝트 기간에 500개의 직업과 총 7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주지사의 최초 130억 달러 규모의 JFK 공항의 비전 계획에 9,6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만청(Port Authority)의 Rick Cotton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과 브리티시 항공(British Airways)은 존에프케네디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을 고객들이 기대하고 누릴 만한 세계 최상급의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진행 중인 특별한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JFK 공항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기록적인 수의 승객들에게 기록적인 수준의 인프라 투자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JFK 공항을 미국으로 향하는 훌륭한 관문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시작하면서,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가 이러한 계획의 일부가 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JFK 공항 비전 계획 시행의 일환으로, 제트블루(JetBlue)는 항공사의 기존 5 터미널(Terminal 5)에 연결되는, 공항 북쪽에 30억 달러 규모, 120만 제곱 피트의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남쪽에 70억 달러 규모의 290만 제곱 피트가 2014년에 3 터미널(Terminal 3)이 철거될 때 비어 놓은 공간뿐만 아니라 기존의 1 터미널과 2 터미널(Terminals 1 and 2)이 위치한 지역에 입주할 것입니다. 새로운 남쪽 터미널은 루프트한자(Lufthansa), 에어 프랑스(Air France), 재팬 에어라인(Japan Airlines), 대한 항공(Korean Air Lines) 등 4개 국제 항공사의 컨소시엄인 터미널 원 그룹(Terminal One Group)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필요한 변화들은 공항의 수용력을 연간 최소 1,500만의 승객까지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터미널 향상의 일환으로 첨단 기술 개선이 포함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JFK 공항을 오가는 고속도로를 개선할 것이며, 항만청(Port Authority)은 기존의 스파게티와 같은 순환로를 단순화하기 위해 항공로 도로에 투자할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의 Robert Isom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터미널에 대한 투자와 우리의 파트너를 환영하는 것은 아메리칸(American) 항공과 브리티시 항공(British Airways)의 고객과 팀 구성원 모두에게 상호이익입니다. 브리티시 항공(British Airways)과의 공동 위치는 고객들에게 이 세계적인 도시 사이의 전례 없는 편의성과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브리티시 항공(British Airways)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Alex Cru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서양 공동 사업 파트너인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과 함께, 8 터미널(Terminal 8)로의 이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현재와 미래에 JFK 공항에서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항만청(Port Authority)과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 협력하여 2022년부터 우리의 새로운 본거지에서 세계 최상급의 대서양 횡단의 여행 경험을 계속하기를 고대합니다.”

8,000명 이상의 아메리칸(American) 항공의 팀원들은 JFK 공항과 LGA 공항에서 뉴욕을 집이라고 부르며, 항공사의 구성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Do Crew를 통하여 미국인들이 뉴욕시에 중요한 다양한 지역사회와 시민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은 공항의 재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항만청(Port Authority)에서 제정하고 있는 새로운 표준에 부합하는 건설 요건, 규정 준수 지침,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 Owned Business Enterprises, MWBE)의 참여 및 지역 기업의 참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지사는 작년 가을, 선출직 공무원, 지역사회 위원회, 비영리 단체, 시민 단체, 지도자급의 성직자들로 구성된 JFK 공항 재개발 지역사회 자문위원회(JFK Redevelopment Community Advisory Council)를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Melinda Katz 퀸즈 자치구 대표와 Gregory Meeks 연방 하원의원이 의장을 맡을 예정이며, 이미 진행 중인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항만청(Port Authority)과 협력할 것입니다. 이 야심 찬 JFK 프로젝트는 지역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계속 피드백 의견을 청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기회를 지역 사업체,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구직자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MWBE)의 이용을 30 퍼센트에 이르게 하겠다는 주지사의 미국을 선도하는 목표에 대한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지역사회 사무소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퀸즈의 자메이카에서 문을 엽니다. 일자리를 찾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를 찾고 있는 기업들이 더 쉽게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